

일주문



故 최규하 대통령 49세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9일 구룡사 대웅전에서 故 최규하 대통령 49세 추모법회와 범종타종 및 동락원 원형복원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국민고충처리위 명예옹부즈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스님은 12월 5일 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실에서 송철호 위원장으로부터 명예옹부즈만 위촉장을 받았다.



봉은사 수요야간법회서 법문
해남 대흥사 부주지 법인 스님은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제6차 수요야간법회에서 법문한다.



자비의 전화 송년 감사의 날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은 12월 19일 낮 12시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자비의 전화 송년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02)737-8803



종교연합문인회 시낭송회 참가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12월 16일 종로 오베르레스트라에서 열리는 한국종교연합문인회의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낭송회'에 참가한다.



팔만대장경 이은 보존회 현판식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12월 16일 오전 11시 '팔만대장경 이은 보존회 현판식' 및 '좋은 연(緣) 연구회 현판식'을 개최한다. (032)933-8234



육군 군종감에 임명
육군 3군사령부 선봉사 이종인 주지 법사는 12월 4일 육군 군종감으로 임명됐다. 이종인 법사는 1985년 임관해 군 포교에 매진해왔다.



생태학총서 출판기념회
एको포럼 홍기삼 공동대표는 12월 12일 소피텔앤버서더 그랜드블룸에서 생태학연구센터 생태학총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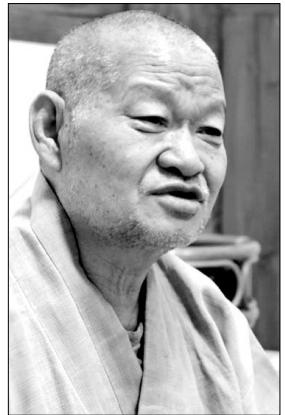
한방건강강좌 및 요리강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의무원장은 12월 13일 오후 2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한방건강강좌와 선재 스님 사찰음식 요리강좌를 개최한다.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에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법인사무처장은 12월 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에 인준됐다.

“법의 흐름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하며 조사의 뜻 선양 발원”

51년째 삼삼조사 추모재 봉행 명정 스님



“조사일거무소식(祖師一去無消息) 문외홍교여반월(門外紅橋如半月). 조사는 한번 가더니 소식없더니 문밖의 무지개 다리가 반달처럼 솟았네.”

경봉 스님이 극락암(주지 명정)에 주석하던 1955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봉행돼 온 삼삼조사 추모재를, 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꾸며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명정 스님(사진)은 이 계승으로 대신 답했다.

이 계승은 삼삼조사 추모재가 끝나면 경봉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곤 했던 것이다.

계승에 삼삼조사 추모재를 지내는 의미와 함께 부처님으로부터 육조혜능까지 법맥을 이어오며 전하려 했던 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봉행되는 삼삼조사 추모재는 경봉 스님이 1955년 당대 제일의 불화가로 알려진 원덕문씨로 하여금 부처님, 마하가섭, 아난존자, 상하화수를 거쳐 달마에서 육조혜능 스님과 우리나라 조사인 태고보우·보조지눌 스님까지 36위를 조성해 모시면서 시작됐다.

조사 영정은 <전등록> <응도회원> 등에 나오는 부처님 사기에 의거해 그 조사의 깨달음과 관련된 기연(奇緣)이나 교화와 연계된 이야기 등의 특색을 살렸다. 현재 삼삼조사 영정이 모셔진 조사전에는 21명의 선방스님들이 동안거에 임하며 조사의 법맥을 잇기 위한 정진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음력으로 매년 10월 그믐날에 봉행되는 삼삼조사추모재는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앞서가신 집안 어른들의 뜻을 기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명정 스님은 “법맥을 이어온 삼삼조사를 추모하는 것은 곧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며 그 가르침을 결정과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명정 스님은 “불조의 혜명을 받들고 법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며 조사의 뜻을 선양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제1회 진각복지대상에 원봉공회 서울본회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장)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진각복지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서울본회가 선정됐다.

개인복지실현상에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원 김중수 원장, 개인자원봉사상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윤예병씨, 단체자원봉사상에는 뉴플러스봉사단(단장 양태민)과 르노삼성자동차 유틸피아봉사단(단장 김원태)이 각각 선정됐다.

원봉공회 서울본회(회장 김영원·사진)는 원불교의 이념에 따라 설립돼 1978년 모금활동을 시작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 지원

및 실직자, 가솔청소년, 북한동포를 위한 쉽터 운영과 상담소 지원사업을 펼치고 저소득층 장학사업 및 구치소 재소 임신부를 돕기 위한 출간자 재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펼쳐왔다.

“제1회 진각복지대상” 시상식은 12월 11일 서울 빅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진각복지재단 회합의 밤에 함께 봉행됐다. 이은비 기자 renby@buddhapia.com

“기초 강좌 열며 회원 확보 모색”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



“걱정입니다. 종단 내 국제포교에 대한 기반이나 지원도 열악할 뿐 아니라 인식도 미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11월 25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열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영성(50·사진) 회장은 걱정부터 털어놓았다. 하지만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통해 수강자를 국제포교사로 만들 것”이라는 각오도 내비쳤다.

강 회장은 “청소년 불교 영어캠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프로그램 등을 계기로 국제포교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꾀한다는 생각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현재 국제포교사회는 안에서 스리랑카 노동자와 부천에서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포교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포교로 개종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다.

가톨릭 신자였던 강 회장은 학교에서 상담연수를 하던 중 불교 심리학에 호기심을 느껴 불교에 귀의했다. 서울 불광사에서 광덕 스님으로부터 ‘현오’라는 법명을 받은 강 회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학위를 졸업할 정도로 강한 학구열을 보였다. 현재 서울 세화여고 사회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00년 국제포교사 5기생으로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제1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 마산MBC 안관수 PD와 교계신문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이재형 법보신문사 기자, 우수상 수상자 현대불교신문 박병영 기자(사진 오른쪽) 등 수상자 전원이 참석했다.

종교신문언론인협, 심포지엄 개최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는 12월 2~3일 제주도 구포관광호텔에서 ‘북핵 이후 종교계의 교화(新교, 포교) 정책 및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5대 종교 언론사 기자 60여명이 참가했다. 정기총회에서 불교측 공동대표에 금강불교 한기선 부장이 선출됐다.

제2기 여성리더십 교육 워크숍 수료식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2월 6일 ‘제2기 여성리더십 교육 워크숍 수료식’을 개최했다. 3개월간 진행된 리더십 워크숍에는 48명이 수강 신청해 43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김인숙 원장은 격려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불자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경소리, 송년법회 및 후원의 밤



전불동요 보급에 앞장서온 풍경소리(원장 송년법회 및 후원의 밤)는 12월 7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부처님 노래가 사바세계에 울려 퍼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풍경소리는 찬불가 노래방 제작 보급과 관련 본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

제9회 한국불교기자대상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가 주최하는 ‘불교언론인 및 후원의 밤 제9회 한국불교기자대상 시상식’이 12월 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개최됐다. 대상은 불교신문 이성수·박인택 기자, 특별상은 현대불교신문 박병영 기자, 법보신문 정하중 기자, 불교신문 어현경 기자, 민불신문 편집국이 각각 수상했다.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역학 개인 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격 : 제한없음
● 기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호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상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육염자(검은깨)와 감식초의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전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려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정가 육십만원(20년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이준식)
전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六壬 受講生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전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4매
◆ 모집인원 : 00명
◆ 수강료 : 30만원 (하나은행 207-910003-34305 한미교육교류재단)
◆ 교육기간 : 12주(3개월) 매주 토요일 6시 오전 10시 ~ 12시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승인1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 개강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 접수문의 : 교학과 02) 766-1321 ~ 2
담당교수 이준목(교리교육학회 회장) 011-1763-3567
◆ 강의내용
※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
※ 결혼, 질병, 구제, 주택, 시험, 소송
◆ 특 전
- 전 교정 서류 시 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본 교육 수료 후 고려교육학회 회원 가입
- 교육 수료 후 창업 준비시 창업컨설팅 무료 상담
중 앙 대 학 교
중 앙 H R D 교 육 원
한 미 교 육 교 류 재 단 부 설
한 미 H R D 교 육 원
www.kafee.co.kr